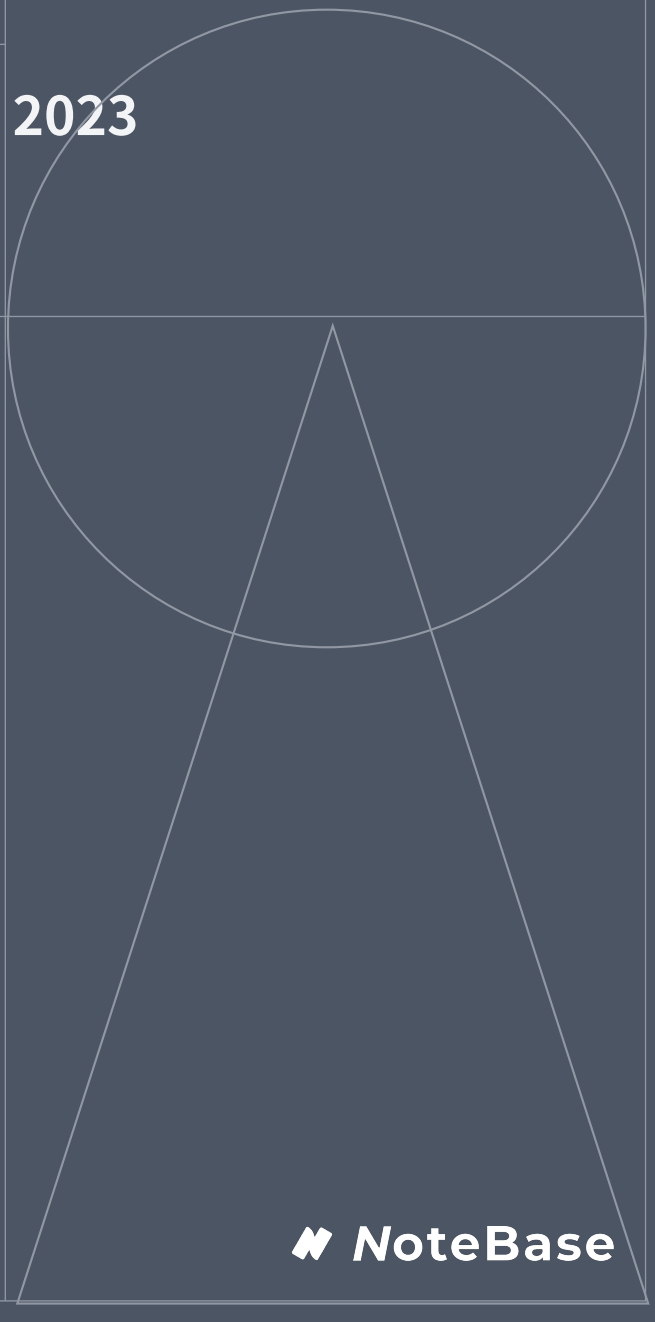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3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3

1. 다음 단어의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① 깃발: [기빨/긷빨]
   ② 뱃머리: [밴머리]
   ③ 줄넘기: [줄넘끼]
   ④ 술잔: [술짠]
   ⑤ 결단력: [결딴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이시옷의 발음,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가 적용된 표준 발음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 발음은 음절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자음의 변동까지 반영한 발음이다. 특히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나며, 일정한 환경에서는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깃발'은 사이시옷 뒤의 'ㅂ'이 된소리로 나므로 [기빨]이 원칙이고 [긷빨]도 허용된다.
② O — '뱃머리'는 사이시옷 뒤에 'ㅁ'이 이어져 [ㄴ]으로 발음되고 비음화가 일어나 [밴머리]가 된다.
③ X — '줄넘기'를 [줄넘끼]로 발음한 부분이 틀렸다. 받침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올바른 표준 발음은 [줄럼끼]이다.
④ O — '술잔'은 받침 'ㄹ' 뒤의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어 [술짠]이 된다.
⑤ O — '결단력'은 'ㄷ'이 된소리 [ㄸ]으로 나고, 'ㄴ' 뒤의 'ㄹ'이 [ㄴ]으로 발음되어 [결딴녁]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 '기'의 된소리되기만 확인하면 [줄넘끼]를 맞는 발음으로 착각하기 쉽다. '줄'의 받침 'ㄹ'과 '넘'의 첫소리 'ㄴ'이 만나 'ㄴ'이 [ㄹ]로 바뀐다는 점까지 적용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기와 발음을 음절 경계별로 대조한다. 먼저 받침과 다음 음절의 첫소리 사이에서 비음화·유음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뒤 자음의 된소리되기 여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ㄹ+ㄴ’은 ‘ㄹ+ㄹ’로 유음화된다. 줄넘기는 [줄럼끼]이다.

NoteBase

2. 밑줄 친 단어의 불규칙 활용 종류가 다른 것은?

① 따뜻한 국을 그릇에 가득 퍼 담았다.
② 얼음에 물을 부으니 금세 녹아 버렸다.
③ 여의도역에서 국회의사당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다.
④ 비 온 뒤 신록이 푸르러 풍경이 아름답다.
⑤ 도공은 경건한 마음으로 도자기를 구워 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불규칙 활용에서 어간이 바뀌는 경우와 어미가 바뀌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가 일반적인 규칙에서 벗어나 달라지는 현상이다.
어간 불규칙 활용: 어간의 일부가 탈락하거나 다른 소리로 바뀐다. 우·ㅅ·ㄷ·ㅂ 불규칙 활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미 불규칙 활용: 어간은 유지되고 어미가 달라진다. 러 불규칙 활용이 이에 해당한다.
결정적인 구별 기준은 활용 과정에서 바뀐 부분이 어간인지 어미인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푸다'에 '-어'가 붙어 '퍼'가 되면서 어간의 '우'가 탈락한 우 불규칙 활용이다. 어간 불규칙 활용이므로 다른 종류라는 판단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②·③·⑤와 같은 어간 불규칙 활용 범주이다.
② X — '붓다'에 '-으니'가 붙어 '부으니'가 되면서 어간의 'ㅅ'이 탈락한 ㅅ 불규칙 활용이다. 어간 불규칙 활용이므로 다른 종류라는 판단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①·③·⑤와 같은 어간 불규칙 활용 범주이다.
③ X — '걷다'에 '-어서'가 붙어 '걸어서'가 되면서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뀐 ㄷ 불규칙 활용이다. 어간 불규칙 활용이므로 다른 종류라는 판단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①·②·⑤와 같은 어간 불규칙 활용 범주이다.
④ O — '푸르다'에 '-어'가 붙을 때 어간 '푸르-'는 유지되고 어미 '-어'가 '-러'로 바뀌어 '푸르러'가 된다. 러 불규칙 활용은 어미 불규칙 활용이므로 나머지와 종류가 다르다.
⑤ X — '굽다'에 '-어'가 붙어 '구워'가 되면서 어간의 'ㅂ'이 '우'로 바뀐 ㅂ 불규칙 활용이다. 어간 불규칙 활용이므로 다른 종류라는 판단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①·②·③과 같은 어간 불규칙 활용 범주이다.

오답 포인트

각 단어의 불규칙 활용 명칭만 보면 우·ㅅ·ㄷ·러·ㅂ으로 모두 달라 보이는 것이 함정이다. 문제에서 묻는 '종류'는 세부 명칭이 아니라 변화한 부분이 어간인지 어미인지에 따른 분류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본형을 어간과 어미로 나눈 뒤 활용형과 비교한다. 어간이 달라졌으면 어간 불규칙 활용, 어간은 그대로이고 어미가 달라졌으면 어미 불규칙 활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우·ㅅ·ㄷ·ㅂ은 어간 변화, 러는 어미 변화이다.

3. 올바른 표준어 표기로만 묶은 것은?

① 가위표, 반딧불이, 숙맥
② 개거품, 개똥벌레, 고수머리
③ 갈치, 개비, 꼼장어
④ 자투리, 공기밥, 곱빼기
⑤ 세째, 겨우살이, 개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각 낱말의 표준어 표기를 구별하여 세 낱말이 모두 올바르게 적힌 묶음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어 표기는 실제 발음이나 익숙한 표기에만 기대지 않고 규정된 형태를 따라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게거품, 곰장어, 공깃밥, 셋째처럼 자주 잘못 적는 형태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위표, 반딧불이, 숙맥은 모두 올바른 표준어 표기이다.
② X — ‘개거품’이 잘못된 표기이다. 올바르게는 ‘게거품’이며, ‘개똥벌레’와 ‘고수머리’는 표준어이다. 따라서 ‘게거품, 개똥벌레, 고수머리’로 고쳐야 한다.
③ X — ‘꼼장어’가 잘못된 표기이다. 올바르게는 ‘곰장어’이며, ‘갈치’와 ‘개비’는 표준어이다. 따라서 ‘갈치, 개비, 곰장어’로 고쳐야 한다.
④ X — ‘공기밥’이 잘못된 표기이다. 올바르게는 사이시옷을 받쳐 쓴 ‘공깃밥’이며, ‘자투리’와 ‘곱빼기’는 표준어이다. 따라서 ‘자투리, 공깃밥, 곱빼기’로 고쳐야 한다.
⑤ X — ‘세째’가 잘못된 표기이다. 올바르게는 ‘셋째’이며, ‘겨우살이’와 ‘개펄’은 표준어이다. 따라서 ‘셋째, 겨우살이, 개펄’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익숙하게 들리는 ‘개거품’, ‘꼼장어’, ‘공기밥’, ‘세째’를 그대로 표준어로 판단하기 쉽다. 특히 ④에서는 ‘곱빼기’가 어색해 보여도 표준어이고, 실제로 틀린 말은 ‘공기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묶음에서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하나씩 먼저 점검한다. 게거품·곰장어·공깃밥·셋째의 표준 표기를 기준으로 틀린 묶음을 제거하고, 남은 낱말도 모두 표준어인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게거품은 '게', 곰장어는 '곰', 공깃밥은 사이시옷, 셋째는 받침 ㅅ을 기억한다.

NoteBase

4. 표현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금을 놓다: 물건 값을 매기다.
② 에누리: 물건 값을 더 많이 부르는 일.
③ 세나다: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다.
④ 눅다: 굳거나 뻣뻣하던 것이 부드러워지다.
⑤ 바가지를 쓰다: 물건 값을 비싸게 지불하여 손해를 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용 표현과 낱말의 뜻이 바르게 연결되었는지를 묻는다. 특히 '세나다'와 '세놓다'처럼 형태가 비슷한 말의 뜻을 구별해야 한다.

핵심 개념

금(을) 놓다: 물건의 값을 정하거나 매기다.
에누리: 받을 값보다 더 많이 부르거나, 그 값을 깎는 일이다.
세나다: 물건 따위가 잘 팔리다.
세놓다: 돈을 받고 집이나 물건 등을 남에게 빌려주다.
녹다: 굳거나 뻣뻣하던 것이 부드러워지다.
바가지를 쓰다: 실제보다 지나치게 비싼 값을 치러 손해를 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금(을) 놓다'는 물건의 값을 정하거나 매긴다는 뜻이므로 설명이 바르다.
② O — '에누리'에는 물건값을 받을 값보다 더 많이 부르는 일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설명이 바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세나다'이다. '세나다'는 물건 따위가 잘 팔린다는 뜻이다.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남에게 빌려준다는 뜻으로는 '세놓다'라고 고쳐야 한다.
④ O — '녹다'는 굳거나 뻣뻣하던 것이 부드러워진다는 뜻으로 쓰이므로 설명이 바르다.
⑤ O — '바가지를 쓰다'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비싼 값을 치러 손해를 본다는 뜻이므로 설명이 바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세나다'를 '세놓다'와 혼동하기 쉽다. '세나다'의 '나다'는 물건이 잘 팔리는 상태를, '세놓다'의 '놓다'는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의 일부가 비슷하더라도 문장 전체의 뜻을 대입해 판단한다. ‘잘 팔리다’이면 ‘세나다’, ‘돈을 받고 빌려주다’이면 ‘세놓다’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세나다는 잘 팔리다, 세놓다는 돈을 받고 빌려주다.

NoteBase

5. 올바른 외래어 표기로만 묶은 것은?

① 난센스, 코냑, 도넛
② 챔피언, 워크숍, 비젼
③ 컨트롤, 알코올, 플래쉬
④ 캐리커처, 센티멘탈, 컨테이너
⑤ 카스텔라, 앙코르, 프리젠테이션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외래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준 표기로 적었는지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 표기는 외국어의 철자나 일상적인 발음 습관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국어에서 정한 표기 원칙과 확립된 표준 표기에 따라 적는다. 이 문항에서는 비전, 플래시, 센티멘털, 프레젠테이션의 정확한 표기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난센스, 코냑, 도넛은 모두 올바른 외래어 표기이다.
② X — 챔피언과 워크숍은 맞지만, '비젼'이 틀렸다. 올바른 표기는 '비전'이므로 전체는 '챔피언, 워크숍, 비전'이다.
③ X — 컨트롤과 알코올은 맞지만, '플래쉬'가 틀렸다. 올바른 표기는 '플래시'이므로 전체는 '컨트롤, 알코올, 플래시'이다.
④ X — 캐리커처와 컨테이너는 맞지만, '센티멘탈'이 틀렸다. 올바른 표기는 '센티멘털'이므로 전체는 '캐리커처, 센티멘털, 컨테이너'이다.
⑤ X — 카스텔라와 앙코르는 맞지만, '프리젠테이션'이 틀렸다. 올바른 표기는 '프레젠테이션'이므로 전체는 '카스텔라, 앙코르, 프레젠테이션'이다.

오답 포인트

각 선지에 익숙하게 쓰이는 잘못된 표기 하나가 섞여 있다. 특히 '비젼·플래쉬·센티멘탈·프리젠테이션'은 실제 발음이나 관용적 습관을 따라 적기 쉬우나 표준 표기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 묶음에 있는 단어를 하나씩 표준 표기와 대조한다. 익숙한 발음대로 적힌 '져·쉬·탈·프리' 형태가 보이면 각각 비전·플래시·센티멘털·프레젠테이션인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비전은 '전', 플래시는 '시', 센티멘털은 '털', 프레젠테이션은 '프레'로 적는다.

6. 다음 글에서 ㉡의 '白松鶻'이 ㉠의 '두터비'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두터비 푸리를 물고 두험 우희 치ᄃᆞ라 안자
> 건넛山 ᄇᆞ라보니 ㉡白松鶻이 ᄯᅥ잇거ᄂᆞᆯ
> 가슴이 금즉ᄒᆞ여 풀덕 뛰여 내ᄃᆞᆺ다가 두험 아래 쟛바지거고
> 모쳐라 ᄂᆞᆯ랜 낼싀만졍 에헐질 번ᄒᆞ괘라

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 고인을 못 뵈도 녀던 길 앞에 있네 / 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녀고 어쩔고

② 굼벵이 매미가 되어 나래 돋쳐 날아올라 / 높으나 높은 나무 소리는 좋거니와 / 그 위에 거미줄 있으니 그를 조심하여라

③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치니 / 찬 기운 새어 들어 잠든 매화를 침노한다 / 아무리 얼리려 한들 봄뜻이야 빼앗을소냐

④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 일도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⑤ 재 너머 성권롱 집에 술 익닷 말 어제 듣고 / 누은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지즐 타고 / 아이야 네 권롱 계시냐 정 좌수 왔다 하여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풍자 시조에서 대상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관계와 말하기 방식이 같은 작품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두터비'는 약자인 '파리'를 잡아먹으면서도 더 강한 '백송골'을 보자 겁을 먹고 달아나는 존재이다. 따라서 '백송골'이 할 법한 말은 높은 곳에 오른 존재에게 그보다 더 강한 위협이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고인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고인이 걸었던 길을 따르겠다는 내용으로,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거나 경계하는 관계가 아니다. 틀린 연결은 '백송골이 두터비에게 할 말'이라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옛사람의 삶과 정신을 본받겠다는 다짐으로 이해해야 한다.
② O — 굼벵이가 매미가 되어 높이 날아오르지만 그 위에는 매미를 위협하는 거미줄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다. 약한 파리를 잡은 두터비 위에 더 강한 백송골이 있는 것처럼, 우쭐대는 존재 위에 더 큰 위협이 있음을 경고하므로 상황과 말하기 방식이 일치한다.
③ X — 추위가 잠든 매화를 침범해도 매화의 봄뜻은 빼앗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시련에도 굽히지 않는 절개를 드러낸다. 틀린 연결은 '더 강한 존재의 위협을 경고하는 말'이라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외부의 시련에도 뜻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이해해야 한다.
④ X — 빠르게 흘러가는 벽계수에게 한번 바다에 이르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달 밝은 산에서 쉬어 가라고 권하는 내용이다. 틀린 연결은 '포식자에게 잡힐 위험을 알리는 경고'라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서두르지 말고 머물러 가라는 권유로 이해해야 한다.
⑤ X —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벗을 찾아가는 흥취와 친교를 나타낸다. 틀린 연결은 '두터비의 허세와 위기'를 겨냥한 말이라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술을 함께 마시기 위해 벗을 찾아가는 풍류로 이해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에도 상대에게 하는 말과 경계의 어조가 나타나지만, 핵심은 머물러 가라는 권유이다. 제시문의 관계는 '파리보다 강한 두터비, 두터비보다 강한 백송골'이라는 힘의 위계이므로, 위쪽의 더 큰 위협을 직접 경고하는 ②를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시문의 대상들을 힘의 순서로 배열한 뒤, 각 선지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가 같은지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는 '약자를 괴롭히던 존재도 더 강한 존재 앞에서는 위협받는다'는 구조가 판단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파리 < 두터비 < 백송골, 매미 < 거미줄처럼 '강자 위의 더 강한 위협'이 핵심이다.

NoteBase

7.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송홧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다

- 박목월, 「윤사월」-

① 음절 수의 반복적 배열을 통해 시에 운율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③ 특정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④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내고 있다.
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운율, 심상, 계절적 배경, 인물의 태도, 시선 이동이 실제 표현에 근거한 설명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색채 대비는 서로 다른 색채 이미지가 맞서도록 배치되는 표현이다. 이 시에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색채어가 없으며, '꾀꼬리 울면'과 '귀 대이고 엿듣고 있다' 같은 청각적 표현이 중심을 이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각 연이 비교적 긴 첫 행과 짧은 둘째 행으로 짝을 이루며 비슷한 음절 수와 호흡이 반복되어 운율감을 형성한다.
② X — 시에는 서로 대조되는 색채어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꾀꼬리 소리와 이를 엿듣는 행위를 중심으로 한 청각적 심상을 통해 눈먼 처녀의 외로움과 바깥 세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③ O — '송홧가루', '윤사월', '꾀꼬리'는 늦봄의 계절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시어이다.
④ O — 눈먼 처녀가 문설주에 귀를 대고 밖의 소리를 '엿듣고 있다'는 모습은 외부 세계를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과 동경을 나타낸다.
⑤ O — '외딴 봉우리'라는 먼 배경에서 '산지기 외딴집'으로, 다시 '눈먼 처녀'와 그 처녀의 귀와 행동으로 초점이 좁혀지면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오답 포인트

'송홧가루'에서 노란빛을 연상할 수 있더라도 다른 색채 이미지와의 대비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색의 연상만으로 '색채 대비'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선지는 작품 속 구체적 근거를 확인한다. 색채 대비라면 최소 두 색채 이미지의 대립이 있어야 하고, 시선 이동은 공간이나 대상의 초점이 어떤 순서로 좁혀지거나 넓어지는지 살핀다.

암기 포인트

「윤사월」은 늦봄의 고요한 산속을 배경으로, 꾀꼬리 소리를 엿듣는 눈먼 처녀의 외로움과 바깥 세계를 향한 동경을 그린다. 핵심은 청각적 심상과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며, 색채 대비는 없다.

NoteBase

8. 다음 (가)~(마)를 논리적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최근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여성 고용률은 20대에 가장 높다가 30대에 추락하는 'M자형' 곡선을 그린다. 변곡점은 결혼과 출산이다. 여성이 출산과 함께 육아 부담을 떠안으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다.

(나) 직장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력단절, 이른바 '경단녀' 현상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3년간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35.0%에서 42.6%로 뛰었고,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7.8년에서 8.9년으로 늘어났다.

(다) 경단녀가 어렵게 구한 새 일자리는 전 직장에 비해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가 경단녀 고용을 꺼리는 게 그 이유일 것이다.

(라) 한국의 성별 격차가 큰 것은 국가와 사회가 여성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 현실이 이러니 임금이 낮아도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업종으로 여성이 몰리고, 일터로 복귀하더라도 저임금 탓에 직장을 관두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① (가)→(나)→(다)→(라)→(마)

② (가)→(나)→(다)→(마)→(라)

③ (가)→(라)→(나)→(다)→(마)

④ (라)→(가)→(나)→(다)→(마)

⑤ (라)→(가)→(다)→(나)→(마)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각 문단의 역할과 지시 표현을 파악하여 문제 제기, 현상 설명, 악화 양상, 후속 결과, 최종 귀결의 순서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라) → (가) → (나) → (다) → (마)

1. (라) — 한국의 성별 격차가 큰 원인을 제시하며 글 전체의 문제의식을 먼저 밝힌다.
2. (가) — 여성 고용률의 'M자형' 곡선과 그 변곡점인 결혼·출산을 설명하여 문제의 구체적 현상을 제시한다.
3. (나) — 앞서 제시한 경력 단절 현상이 코로나19를 거치며 악화되었다는 통계 자료를 덧붙인다.
4. (다) — 경력 단절 뒤 어렵게 구한 새 일자리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후속 결과를 설명한다.
5. (마) — '현실이 이러니'로 앞의 불리한 재취업 현실을 받아, 여성이 비정규직에 몰리고 다시 저임금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귀결을 제시한다.

왜 이 순서인가: (나)의 '경력 단절'은 (가)에서 설명한 현상을 이어받고, (다)의 '경단녀가 어렵게 구한 새 일자리'는 (나)의 재취업 지연을 구체화하며, (마)의 '현실이 이러니'는 (다)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을 직접 받아 결론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라)가 (다) 뒤에 놓여 글 전체의 원인 제시가 지나치게 늦고, (마)의 '현실이 이러니'가 받아야 할 (다)의 재취업 현실도 바로 앞에서 끊어진다. 틀린 배열 '(가) → (나) → (다) → (라) → (마)'는 '(라) → (가) → (나) → (다) → (마)'로 고쳐야 한다.

② X — (마)는 (다)의 낮은 임금·고용 불안정이라는 '현실'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선지는 그 사이에 (라)를 끼워 지시 관계를 끊는다. 틀린 배열 '(가) → (나) → (다) → (마) → (라)'는 '(라) → (가) → (나) → (다) → (마)'로 고쳐야 한다.

③ X — (가)로 세부 현상을 먼저 제시한 뒤 (라)로 글 전체의 문제 원인을 늦게 밝히므로 두 문단의 역할이 뒤바뀐다. 틀린 배열 '(가) → (라) → (나) → (다) → (마)'는 '(라) → (가) → (나) → (다) → (마)'로 고쳐야 한다.

④ O — (라)에서 문제 원인을 제시하고, (가)에서 M자형 고용 곡선을 설명한 뒤, (나)에서 그 경력 단절의 악화를 통계로 뒷받침한다. 이어 (다)에서 재취업 일자리의 열악함을 제시하고, (마)에서 '현실이 이러니'라고 받아 최종 귀결을 설명하므로 흐름이 자연스럽다.

⑤ X — (다)의 '경단녀가 어렵게 구한 새 일자리'는 (나)의 재취업 지연을 받은 후속 내용이므로 (나)보다 먼저 올 수 없다. 틀린 배열 '(라) → (가) → (다) → (나) → (마)'는 '(라) → (가) → (나) → (다) → (마)'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나)와 (다)의 선후 관계이다. (나)는 경력 단절 경험과 재취업 지연이라는 현상을 먼저 제시하고, (다)는 그렇게 재취업한 새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다음 단계의 결과를 설명한다. 또한 (마)의 '현실이 이러니'는 바로 앞 (다)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을 받으므로 (다)와 (마)를 붙여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글 전체의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문단을 찾고, 대명사·지시 표현과 반복어가 무엇을 받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원인이나 현상 → 통계·구체화 → 후속 결과 → 결론의 인과 흐름으로 배열한다. 이 문제에서는 '경력 단절'이 (가)와 (나)를 잇고, '새 일자리'가 (나)와 (다)를 잇고, '현실이 이러니'가 (다)와 (마)를 잇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큰 문제 제기 (라) → M자형 현상 (가) → 경력 단절 악화 (나) → 재취업의 질 저하 (다) → 비정규직·저임금의 악순환 (마)이다.

NoteBase

9. 다음 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제일', '가장'과 같은 최상급을 쓰면 즐거울 때가 있다. 그때 나는 '무척' 진실한 거짓말을 하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종종 다른 방법을 놔두고 단순하고 무능한 부사를 쓴다. 그의 무능에 머리를 기댄다. 부사는 점잖지가 않아서 금세 낯빛이 밝아진다. 조금 정직한 것도 같다. 부사는 싸움 잘하는 친구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는 중학생처럼 과장과 허풍, 거짓말 주위를 알찐거린다. 나는 거짓말을 쓰되 그것이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고심하다 겨우 부사 몇 개를 지운다. 누군가는 문장론에서 '부사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썼다. 만일 지옥의 특징 중 하나가 '지루함'이라면 그것은 반만 맞는 표현일지 모른다. 부사는 세계를 우아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흥미롭고 맛깔나게 해 준다. 그러니 부사가 있을 곳은 지옥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다급하고 복잡한 세상, 유려한 표현 대신 불쑥 부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는 속세, 그 세속에서 쓰이는 소설 안일 것이다. 부사를 변호했다. 기분이 '굉장히' 좋다.

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②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글이다.

③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하는 글이다.

④ 무언가를 주장하는 논리적인 글이다.

⑤ 마음을 나타내는 정서 표현의 글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글의 주된 목적과 표현 방식을 근거로 정보 전달·설명·설득·논증·정서 표현 가운데 글의 성격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서 표현의 글은 글쓴이의 경험, 생각, 느낌을 주관적인 언어로 드러내는 글이다. 이 글은 부사를 쓰는 자신의 습관과 부사에 대한 애정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며, '기분이 굉장히 좋다'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직접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지식을 독자에게 알려 주는 것이 중심이다. 이 글은 부사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정보를 전달하는'이며, 올바르게는 '글쓴이의 경험과 마음을 나타내는' 글이다.
② X —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글'은 대상의 개념, 원리, 과정 등을 독자가 이해하도록 체계적으로 풀이한다. 이 글은 부사의 개념이나 기능을 설명하기보다 부사를 즐겨 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낸다. 올바르게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수필 형식으로 표현하는' 글이다.
③ X —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하는 글'은 독자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목적과 근거가 중심이다. 이 글에는 독자에게 부사를 쓰라고 요구하거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다. 올바르게는 '부사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과 기분을 드러내는' 글이다.
④ X — '무언가를 주장하는 논리적인 글'은 명확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논거가 중심이다. 이 글은 부사를 변호하는 듯한 표현을 쓰지만 객관적 논증보다 개인적 경험, 비유, 유머와 감정이 중심이다. 올바르게는 '주관적인 경험과 정서를 표현한' 글이다.
⑤ O — 글쓴이는 부사를 쓰는 자신의 습관과 부사에 대한 애정을 솔직하고 유머러스하게 드러내며 마지막에 '기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마음을 직접 표현한다. 따라서 마음을 나타내는 정서 표현의 글이다.

오답 포인트

지문에 '부사를 변호했다'라는 말이 있어 ④의 주장하는 글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일부 문장의 주장성보다 글 전체의 주된 목적을 보아야 한다. 이 글은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결론을 입증하는 논설문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과 느낌을 풀어낸 수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글의 소재가 아니라 주된 목적을 확인한다. 객관적 사실을 알리면 정보 전달, 개념이나 원리를 풀면 설명, 독자의 태도 변화를 꾀하면 설득, 주장과 근거로 타당성을 입증하면 논증, 개인의 경험과 느낌을 주관적으로 드러내면 정서 표현의 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험·생각·느낌을 주관적으로 드러내면 정서 표현의 글이다.

NoteBase

10. <보기>에 제시된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내가 고향에 간 지 한참 되었다.
오늘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다.
㉡ 그는 얼굴을 가린 채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왔다.
나는 내일 일정은 커녕 오늘 일정도 기억하지 못했다.
㉢ 동생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시장에서 콩나물 천 원어치를 샀다.
㉣ 결혼한 아들네가 독립을 한다니 시원섭섭하겠구먼그려.
아침에도 늑장 부리는 바람에 지각을 하고야 말았다.
㉤ 예선전에서 우리 팀이 여지없이 지고 말았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① ㉠의 '지'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② ㉡의 '채'와 '커녕'은 모두 의존 명사로 항상 띄어 써야 한다.

③ ㉢의 '-투성이'와 '-어치'는 모두 접사이므로 항상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의 '그려'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 '늑장 부리는'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⑤ ㉤에서 부사로 쓰인 '여지없이'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미 '-는데'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여 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접사·어미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원칙을 실제 표현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는 홀로 쓰이기 어려우나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조사는 체언 등에 붙고, 접사는 어근에 붙어 새말을 만들며,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으므로 모두 앞말에 붙여 쓴다. 한 단어로 굳어진 부사는 붙여 쓰지만, 각각의 단어가 결합한 구는 단어별로 띄어 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간 지'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간 지'처럼 띄어 쓴다.

② X — '채'는 의존 명사이므로 '가린 채'처럼 띄어 쓰지만, '커녕'은 의존 명사가 아니라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틀린 표현 '일정은 커녕'은 '일정은커녕'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투성이'와 '-어치'는 모두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따라서 '상처투성이', '천 원어치'가 맞다.

④ O — '그려'는 조사이므로 '구먼그려'처럼 앞말에 붙여 쓰고, '늑장 부리는'은 '늑장'과 '부리는'이 결합한 구이므로 띄어 쓴다.

⑤ O — '여지없이'는 한 단어인 부사이므로 붙여 쓴다. '-는데'는 연결 어미이므로 '있는데'처럼 용언의 어간에 붙여 쓴다.

오답 포인트

②는 밑줄 친 두 표현을 모두 의존 명사로 묶어 판단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채'는 띄어 쓰는 의존 명사이지만 '커녕'은 붙여 쓰는 조사라는 품사 차이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표현의 품사를 먼저 판별한다. 의존 명사이면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접사·어미이면 앞말에 붙여 쓴다. 한 단어로 등재된 부사인지, 여러 단어가 결합한 구인지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의존 명사는 띄고, 조사·접사·어미는 붙인다: '가린 채', '일정은커녕'.

NoteBase

11. 밑줄 친 서술어가 높임말이 아닌 것은?

① 사돈어른께 안부를 여쭈었다.
② 매일 아침 할아버지께서는 진지를 잡수신다.
③ 어머니의 얼굴에 눈물이 가실 날이 없다.
④ 말씀으로만 듣던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⑤ 이 회사는 고객을 정성껏 모시도록 사원 교육을 실시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서술어가 높임의 특수 어휘인지, 일반 동사의 활용형인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높임의 특수 어휘는 높이는 대상을 고려하여 보통의 동사 대신 쓰는 말이다. '잡수시다'는 주체를 높이고, '여쭈다·뵙다·모시다'는 동작이 미치는 대상을 높인다. 반면 '가시다'가 '사라지다, 없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높임 표현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여쭈었다'의 기본형 '여쭈다'는 '묻다'의 높임말로, 안부를 묻는 대상인 '사돈어른'을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② O — '잡수신다'의 기본형 '잡수시다'는 '먹다'의 높임말로,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③ X — '가실'은 높임의 '-시-'가 결합한 말이 아니라 '사라지다, 없어지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 '가시다'가 활용한 형태이다. 따라서 '눈물이 가실 날이 없다'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다'라는 뜻이며 높임 표현이 아니다.
④ O — '뵙게'의 기본형 '뵙다'는 '보다·만나다'의 높임말로, 만나는 대상인 '분'을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⑤ O — '모시도록'의 기본형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말로, 동작의 대상인 '고객'을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가실'을 '가다'에 주체 높임의 '-시-'가 붙은 형태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장에서는 '눈물이 없어지다'라는 의미의 한 단어 '가시다'이므로 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높임말로 판단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의 기본형과 문맥상 뜻을 먼저 확인한다. '-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본형 자체가 '가시다'처럼 하나의 일반 동사이면 높임 표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여쭈다·뵙다·모시다·잡수시다는 높임말이고, '눈물이 가시다'의 가시다는 '사라지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이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2. ~ 문13.]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늑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앉어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골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가]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
- 하눌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 쨈'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흰 바람벽이 있어」-

12.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나]는 화자의 생각을 정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가]의 글자는 [나]에 비해 화자의 내적 독백에 치우쳐 있다.
③ [나]는 [가]의 반복이면서 심화된 정서를 담고 있다.
④ [나]에는 화자와 동일시하는 대상이 나타나 있다.
⑤ [나]에는 [가]와 달리 화자의 운명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정답 5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가]와 [나]에 나타난 화자의 자기 인식, 정서의 심화, 대상과의 동일시를 파악하고, 운명 극복 의지가 실제로 드러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통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자신의 운명과 사랑·슬픔으로 가득한 내면을 직접 드러내는 독백이다.
[나]는 [가]의 핵심 표현을 반복하면서, 화자가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도 자신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라기보다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위안받는 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의 '나는'으로 시작하는 글자는 화자가 자신의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처지와 사랑·슬픔으로 가득한 내면을 직접 토로한 것이므로 화자의 생각을 정서적으로 표현한다.
② O — [가]는 화자 자신이 '나는'이라고 말하는 내적 독백의 형식이 중심인 반면, [나]는 '하늘'을 내세워 자신이 귀한 존재들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고 위로하는 내용이므로 [가]의 글자가 화자의 내적 독백에 더 가깝다.
③ O — [나]는 [가]의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를 그대로 반복하고, 여기에 화자가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과 자신을 연결하여 위로의 정서를 더한다. 따라서 [가]의 정서를 반복하면서 심화한다.
④ O — [나]에서 초생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와 여러 예술가는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존재로 제시된다. 화자는 이들을 자신의 처지와 연결하므로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 나타난다.
⑤ X — [나]에는 화자의 운명을 이겨 내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운명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이며, 올바르게는 [나]에 화자가 자신의 운명을 귀한 존재들의 삶과 연결하여 긍정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나]의 위로와 긍정을 현실 극복 의지로 확대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나]에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행동이나 결의가 없고, 자신과 닮은 존재들을 떠올리며 현재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정서만 나타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극복 의지'라는 감상은 현실을 바꾸려는 결심, 행동, 미래 지향적 태도가 작품에 실제로 제시될 때 성립한다. 자기 처지를 다른 존재와 연결해 의미를 부여하거나 위로하는 모습만 있다면 운명의 긍정·수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는 자기 고백, [나]는 반복·심화와 자기 위로이며, 위로는 곧 극복 의지가 아니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2. ~ 문13.]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늑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앉어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골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가]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
- 하눌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 쨈'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흰 바람벽이 있어」-

13. ㉠ ~ ㉦에 대한 감상으로 옳은 것은?

① ㉠은 현재의 공간, ㉥은 과거의 공간이다.
② ㉡, ㉢은 화자의 쓸쓸함을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③ ㉢, ㉦은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려낸다.
④ ㉣은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이고, ㉤은 그리워하는 대상이다.
⑤ ㉡, ㉢, ㉣, ㉤은 모두 ㉠에 비친 그림자의 모습이다.

정답 2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 공간과 흰 바람벽에 떠올리는 장면을 구별하고, 감각적 심상이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묻는다.

핵심 개념

감각적 심상은 시각·미각·촉각 등 감각에 호소하는 표현으로 대상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장치이다. 이 시에서 ㉠의 좁은 방과 흰 바람벽은 화자가 현재 머무는 현실이고,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장면은 그 벽을 바라보며 떠올린 생각과 상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은 화자가 현재 머무는 좁은 방의 흰 바람벽이므로 현재의 현실 공간이다. 그러나 ㉥은 사랑하는 사람이 저녁을 먹는 모습을 화자가 머릿속에 그려 본 상상의 공간이지, 과거의 공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은 과거의 공간'이며, 올바르게는 '㉥은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상상한 공간'이다.

② O
㉡의 '어두운 그림자'는 시각적 심상으로 초라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고, ㉢의 '달디단 따끈한 감주'는 미각적·촉각적 심상으로 화자가 그리워하는 따뜻함을 구체화한다. 이 대비는 춥고 외로운 현실에 놓인 화자의 쓸쓸함을 감각적으로 부각한다.

③ X
㉢의 '달디단'과 ㉣의 '대구국'에는 미각을 환기하는 표현이 쓰였지만, 이 장면들이 직접 드러내는 것은 고향 자체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가난한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다. 틀린 표현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며, 올바르게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다.

④ X
㉤의 늙은 어머니는 화자가 가난하고 추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그리워하는 대상이지 원망하는 대상이 아니다. ㉦의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움의 대상이다. 틀린 표현은 '㉤은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이며, 올바르게는 '㉤과 ㉦은 모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다.

⑤ X
㉡은 흰 바람벽에 실제로 드리운 낡은 무명 셔츠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반면 ㉢과 ㉤은 어머니에 관한 화자의 생각이고, ㉦은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생각이므로 모두 그림자의 모습인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모두 ㉠에 비친 그림자의 모습'이며, 올바르게는 '㉡은 실제 그림자이고, ㉢·㉤·㉦은 흰 바람벽을 보며 화자의 의식에 떠오른 생각과 대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흰 바람벽에 떠오른다’는 공통점 때문에 모든 장면을 실제 그림자나 과거 회상으로 처리하면 틀린다. ①의 ㉤은 과거라는 시간 표지가 없는 상상의 공간이고, ③에서는 음식의 미각적 이미지가 곧바로 고향의 그리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떠올리는 장면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현재 화자가 실제로 있는 공간과 머릿속에 떠올린 공간을 나눈다. 다음으로 감각어가 만드는 분위기와 그 감각어에 연결된 그리움의 대상을 확인한다. 작품에 없는 ‘과거’, ‘고향’, ‘원망’ 같은 의미를 선지가 덧붙이면 그 근거가 본문에 있는지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흰 바람벽은 현재의 외로운 현실 위에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떠오르는 매개이며, 어두운 그림자와 달고 따뜻한 감각의 대비가 쓸쓸함을 부각한다.

NoteBase

14. 다음 (가) ~ (마)를 논리적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한 사회가 공동체로서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다.
>
> (가) 그래서 언어는 지역이나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에 따른 사회적 특성이 드러난다. 하지만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다.
>
> (나) 예를 들어, '팽이'는 지역에 따라 '패이(강원)', '핑갱이(경북)', '팽데기(경남)', '도로기(제주도)', '뺑도리(전북)', '팽구래미(충북)', '세루(평안)', '뽀애(함경)' 등으로 불린다. 같은 '팽이'임에도 지역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
> (다) 또 같은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는다. 즉, 언어는 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
> (라) 언어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사회를 발전시킨다.
>
> (마) 또 지역이 같더라도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의 차이로 인해 같은 뜻을 지닌 언어가 형태를 달리하는 예도 있다. 이는 개인의 언어 속에 그가 속한 공동체의 특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한다.

① (가)→(나)→(라)→(다)→(마)

② (가)→(다)→(마)→(나)→(라)

③ (나)→(가)→(마)→(다)→(라)

④ (라)→(가)→(나)→(다)→(마)

⑤ (라)→(가)→(나)→(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접속 표현과 지시어, 일반 진술과 예시의 관계를 근거로 글의 논리적 순서를 정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라) → (가) → (나) → (마) → (다)
1. (라):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사회의 형성·유지·발전에 기여한다는 중심 화제를 제시한다.
2. (가): '그래서'로 앞 문장의 내용을 이어 받아 언어에 사회적 특성이 드러난다는 일반 원리를 설명한다.
3. (나): '예를 들어'로 (가)의 지역에 따른 언어 차이를 '팽이'의 지역별 형태로 구체화한다.
4. (마): '또'로 지역 차이에서 연령·성별·사회 집단에 따른 차이로 논의를 확장하고, 언어에 공동체의 특성이 담긴다고 정리한다.
5. (다): '또'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한 번 더 확장하여,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는 효과를 덧붙인다.

이 순서가 되는 이유는 (가)의 '그래서'가 (라)의 언어와 사회에 관한 중심 진술을 전제로 하고, (나)는 (가)의 지역 차이에 대한 예시이며, (다)의 공동체 의식 강화는 (마) 끝부분의 공동체 의식 공유를 자연스럽게 이어 받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그래서'가 받을 앞 내용 없이 글이 시작되고, (다)가 (마)의 공동체 의식 공유보다 먼저 놓여 연결이 어색하다. 틀린 순서 '(가) → (나) → (라) → (다) → (마)'는 '(라) → (가) → (나) → (마) → (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가)의 '그래서'가 받을 내용이 없고, 구체적 예시인 (나)가 중심 화제를 제시하는 (라)보다 먼저 나온다. 틀린 순서 '(가) → (다) → (마) → (나) → (라)'는 '(라) → (가) → (나) → (마) → (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나)는 '예를 들어'로 시작하는 예시이므로 지역 차이를 일반적으로 밝힌 (가) 뒤에 와야 하며,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중심 화제 (라)가 맨 마지막에 올 수 없다. 틀린 순서 '(나) → (가) → (마) → (다) → (라)'는 '(라) → (가) → (나) → (마) → (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라) → (가) → (나)까지는 자연스럽지만, 공동체 의식의 '공유'를 언급하는 (마) 뒤에서 그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설명하는 (다)가 이어져야 한다. 틀린 끝부분 '(다) → (마)'는 '(마) → (다)'로 고쳐야 한다.
⑤ O — (라)에서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가)에서 일반 원리를 설명한 뒤, (나)에서 지역 차이의 예를 든다. 이어 (마)에서 다른 사회적 차이와 공동체 의식으로 논의를 넓히고, (다)에서 공동체 의식 강화라는 효과로 마무리하므로 논리적 연결이 자연스럽다.

오답 포인트

(가)의 '그래서'와 (나)의 '예를 들어'만 보고 (가) → (나)만 묶은 뒤 글의 첫 문장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앞에는 원인이 되는 (라)가 필요하다. 또한 ④처럼 앞의 세 문장을 맞게 배열해도, (마)의 '공동체 의식 공유'가 (다)의 '공동체 의식 강화'로 이어지는 끝부분의 연결을 거꾸로 놓으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시어 없이 중심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을 찾고, '그래서'는 원인 뒤에, '예를 들어'는 일반 진술 뒤에 배치한다. 마지막에는 앞 문장의 핵심어가 뒤 문장에서 반복·발전되는지를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의사소통과 사회' 제시 → 사회적 특성의 일반 원리 → 지역 예시 → 다른 사회적 차이와 공동체 의식 → 공동체 의식 강화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중심 화제 → 결과(그래서) → 예시(예를 들어) → 추가 확장(또) → 핵심어의 발전 순서로 기억한다.

NoteBase

1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지구 온난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지구가 계속 더워질 경우 해수면이 즉각적이고 아주 높게 상승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 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수면의 상승은 여러 가지 힘들이 맞부딪혀서 나온 산물이다.
>
> 더운 온도로 물의 부피는 상승한다. 더운 온도로 더 많은 빙하들이 녹는다. 그러나 더운 온도는 해양과 호수로부터 더 많은 수분을 증발시킨다. 구름이 증발한 수분을 세계의 빙하와 만년설에 옮기고 [ ] 빙하와 만년설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
> 시간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얼음은 천천히 녹는다. 빙하와 만년설은 매우 많은 양의 태양열을 표면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녹으려면 수천 년이 걸린다. 워싱턴 대학의 존 스톤에 따르면, 이것이 서남극의 빙판이 빙하기가 끝나고 10,000년이 지났음에도 완전히 녹으려면 아직 7,000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톤 박사와 연구 팀은 얼음이 밀려나면서 남극 대륙의 포드 산맥에 남겨진 암석의 화학 성분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과거 지구의 역사를 고려할 때 서남극의 빙판이 사라지기 전에 또 다른 한랭기가 끼어들 확률이 크다.

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면

② 물의 부피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③ 암석에 의해 얼음이 밀려나지 않으면

④ 해수면이 즉각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⑤ 그 지역의 온도가 얼음을 녹일 정도가 아니면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빈칸 앞뒤에 제시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여 빙하가 커지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온 상승은 바다와 호수의 증발량을 늘리고, 구름은 늘어난 수분을 빙하와 만년설 지역으로 옮긴다. 이 수분이 눈이나 얼음으로 쌓인 뒤 녹지 않아야 빙하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빈칸에는 그 지역의 온도가 얼음을 녹일 만큼 높지 않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면'은 빙하가 커지는 직접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글의 다음 문단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얼음이 천천히 녹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그 지역의 온도가 얼음을 녹일 정도가 아니면'이다.
② X — '물의 부피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은 따뜻해진 물의 열팽창과 해수면 상승에 관한 내용일 뿐, 운반된 수분이 빙하로 축적되는 조건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그 지역의 온도가 얼음을 녹일 정도가 아니면'이다.
③ X — '암석에 의해 얼음이 밀려나지 않으면'은 뒤 문단의 암석 성분 조사와 글의 빙하 형성 원리를 잘못 연결한 표현이다. 암석은 과거 빙하의 흔적을 조사하는 자료일 뿐 빙하 성장의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그 지역의 온도가 얼음을 녹일 정도가 아니면'이다.
④ X — '해수면이 즉각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은 해수면 상승의 속도에 관한 조건이며, 빙하가 커지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그 지역의 온도가 얼음을 녹일 정도가 아니면'이다.
⑤ O — 구름이 옮긴 수분이 빙하와 만년설 지역에서 얼어 쌓이고, 그 지역의 온도가 얼음을 녹일 만큼 높지 않으면 축적량이 늘어 빙하와 만년설이 더 커진다는 인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오답 포인트

글에 실제로 등장하는 '시간', '물의 부피', '암석', '해수면'이라는 단어만 보고 선지를 고르면 안 된다. 빈칸 바로 앞의 수분 이동이 바로 뒤의 빙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옮겨진 수분이 녹지 않고 얼음으로 축적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의 원인과 뒤의 결과를 먼저 잇는다. 원인은 '수분이 빙하 지역으로 이동함'이고 결과는 '빙하가 커짐'이므로, 그 사이에는 '수분이 얼음으로 쌓이고 녹지 않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빈칸 추론은 주변에 반복된 단어보다 앞의 원인과 뒤의 결과를 연결하는 필수 조건을 찾는 문제이다.

NoteBase

16. 다음 대화를 참고할 때 파생어가 아닌 것은?

> 학생: 선생님!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이 어려워요. 어떻게 구분하면 쉬울까요?
>
> 교사: 어근끼리 결합해 형성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해. 그리고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를 '파생어'라고 해.
>
> 학생: 그러면 논밭은 합성어인가요?
>
> 교사: 그렇지! 논과 밭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이기 때문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야.
>
> 학생: 그러면 덮밥은요?
>
> 교사: 덮밥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언 어간 '덮'과 어근 '밥'이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야.
>
> 학생: 그러면 풋사랑은요?
>
> 교사: 풋사랑은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접사 '풋'과 어근 '사랑'이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파생어야.

① 애당초

② 말벌

③ 날짐승

④ 맨발

⑤ 내분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와 어근에 접사가 붙은 파생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합성어: 실질적인 뜻을 지닌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파생어: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판별의 핵심은 앞부분이 독립적인 실질 의미를 지닌 어근인지, 제한된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지 확인하는 데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애당초'는 접두사 '애-'와 어근 '당초'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파생어가 아닌 말'이 아니라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로 고쳐 분류한다.
② X — '말벌'은 '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말-'과 어근 '벌'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파생어가 아닌 말'이 아니라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로 고쳐 분류한다.
③ O — '날짐승'은 동사 '날다'의 어간 '날-'과 명사 '짐승'이라는 두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따라서 파생어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④ X — '맨발'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맨-'과 어근 '발'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파생어가 아닌 말'이 아니라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로 고쳐 분류한다.
⑤ X — '내분비'는 '안, 내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내-'와 어근 '분비'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파생어가 아닌 말'이 아니라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로 고쳐 분류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날-'을 접두사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날-'은 동사 '날다'의 어간으로서 '공중으로 움직이다'라는 실질적인 뜻을 지닌 어근이므로, '날짐승'은 합성어이다. 또한 발문이 '파생어인 것'이 아니라 '파생어가 아닌 것'을 묻는다는 점에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어를 나눈 뒤 각 부분의 성격을 확인한다. 두 부분이 모두 실질적인 뜻을 지닌 어근이면 합성어이고, 한 부분이 어근에 제한된 뜻을 더하는 접사이면 파생어이다.

암기 포인트

어근+어근은 합성어, 접사+어근 또는 어근+접사는 파생어이다. '날짐승'의 '날-'은 접두사가 아니라 '날다'의 어간이다.

NoteBase

17. 국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7세기 이후 구개음화가 나타났다.

② 중세 국어 시기의 'ㆍ'(아래 아)는 현대 국어에서는 제주 방언에서 확인된다.

③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법이 상대 높입법으로 변화하였다.

④ 17세기 이후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⑤ 중세 국어 시기의 종성에서는 'ㄷ'과 'ㅅ'을 구분하였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는 종성의 'ㅅ'을 'ㄷ'으로 적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세 국어에서 근대·현대 국어로 이어지는 음운 변화, 높임법 변화, 조사와 종성 표기의 변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개음화는 주로 'ㅣ'나 반모음 'ㅣ' 계열 앞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17세기 이후 확산되었다. 중세 국어의 아래아는 소실되었지만 제주 방언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일부는 상대 높임 표현으로 이어졌고, 주격 조사 '가'도 17세기 이후 나타났다. 종성 표기에서는 중세 국어의 8종성법이 근대 국어의 7종성법으로 바뀌면서 종성 'ㄷ'을 'ㅅ'으로 적게 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구개음화는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 확산된 음운 변화이므로 옳다.
② O — 중세 국어에서 쓰인 아래아는 현대 표준어에서는 소실되었지만 제주 방언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O —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에 쓰이던 선어말 어미의 일부가 변화하여 현대 국어의 상대 높임 표현에 이어졌으므로 옳다.
④ O — 주격 조사 '가'는 17세기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옳다.
⑤ X — 틀린 표현은 '종성의 ㅅ을 ㄷ으로 적는 것'이다. 근대 국어의 7종성법에서는 그 반대로 종성 'ㄷ'을 'ㅅ'으로 적었다.

오답 포인트

⑤는 'ㅅ'과 'ㄷ'의 표기 방향을 뒤집은 선지이다. 중세 국어의 8종성법에서 근대 국어의 7종성법으로 바뀔 때 빠진 종성 글자는 'ㄷ'이며, 종성 'ㄷ'은 'ㅅ'으로 표기되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어사 변화는 시기와 변화 방향을 함께 확인한다. 특히 종성 표기는 '중세 8종성법 → 근대 7종성법', 'ㄷ → ㅅ 표기'의 방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구개음화·주격 조사 '가'는 17세기 이후, 근대 7종성법은 종성 'ㄷ'을 'ㅅ'으로 표기한다.

NoteBase

18.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 반대신문식 토론은 크게 입론-반대신문-반론의 순서로 이어진다. 토론에서 찬반 측이 처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입론은 앞으로 진행될 논의의 흐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찬반 측은 토론을 준비하며 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두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론의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입론에서 양측은 모두 토론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쟁점인 필수 쟁점과 관련하여 언급해야 한다. 찬성 측은 필수 쟁점을 바탕으로 현재 상태의 변화를 주장해야 하는 입증의 책임을 가지며 반대 측은 필수 쟁점을 바탕으로 현재 상태의 변화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
> 토론자는 상대측의 입론을 들으며 그에 나타난 주장과 이유, 근거를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오류를 검증하는 질문을 제시해야 한다. 이처럼 토론에서 상대측의 발언에 나타난 논리적 허점이 드러나도록 질문하고 이에 대해 상대측의 답변을 듣는 과정을 반대신문이라고 한다.
>
> 입론과 반대신문의 과정 후 토론자는 반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며 청중을 설득해야 한다. 반박 시 앞서 다룬 모든 쟁점을 언급하기보다 그중 자신에게 유리한 쟁점을 선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또 반박 단계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펼쳐선 안 된다. 반박 단계는 찬반 측이 마지막으로 주장을 발언하는 단계이므로 새로운 주장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① 토론의 과정

② 토론자의 태도

③ 입론과 반론의 방법

④ 반대 토론의 방법

⑤ 입론과 반대신문의 과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글의 각 문단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중심 화제와 그 전개 범위를 파악하여 적절한 제목을 고르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1. 입론 — 찬반 양측이 필수 쟁점을 바탕으로 각자의 주장을 제시한다.
2. 반대신문 — 상대측 입론의 주장과 근거를 검토하고 논리적 허점이 드러나도록 질문한다.
3. 반박 —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여 청중을 설득하되 새로운 주장은 제시하지 않는다.

왜 이 순서: 상대의 입론이 먼저 제시되어야 그 내용을 대상으로 반대신문을 할 수 있고, 입론과 반대신문에서 드러난 쟁점을 토대로 마지막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입론, 반대신문, 반박의 순서와 각 단계에서 토론자가 해야 할 일을 차례로 설명하므로 '토론의 과정'이 전체 내용을 가장 넓고 정확하게 포괄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토론자의 태도'이다. 글은 토론자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나 예절이 아니라 단계별 역할과 진행 순서를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토론의 과정'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입론과 반론의 방법'이다. 이 제목은 글에서 독립적으로 설명한 반대신문 단계를 드러내지 못하고, 글 전체의 세 단계도 포괄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입론·반대신문·반박으로 이어지는 토론의 과정'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반대 토론'이다. 글은 반대 측만의 토론 방법이 아니라 찬반 양측의 입론과 상대측에 대한 반대신문, 각자의 반박을 모두 다룬다. 올바르게는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토론의 과정'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입론과 반대신문'이다. 마지막 문단에서 반박 단계의 역할과 주의점까지 비중 있게 설명하므로 범위가 불완전하다. 올바르게는 '입론, 반대신문, 반박의 과정'이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⑤는 본문에 실제로 나온 일부 단계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럴듯하지만, 반대신문 또는 반박을 빠뜨려 글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제목은 특정 문단에만 맞는 말보다 모든 문단을 아우르는 말을 선택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문단의 중심어를 먼저 묶고, 후보 제목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단을 포괄하는지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입론, 반대신문, 반박이 모두 '토론의 과정'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묶인다.

암기 포인트

제목은 일부 단계가 아니라 글 전체의 공통 화제를 담아야 한다. 입론 → 반대신문 → 반박은 토론의 과정이다.

NoteBase

19. 띄어쓰기가 맞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그는∨어려운∨공부한다고∨매일∨도서관에∨가요.
ㄴ. 끊임없는∨연구와∨투자로∨신제품을∨개발하였다.
ㄷ. 그와∨결혼을∨결심한∨것은∨만난∨지∨다섯∨번만이다.
ㄹ. 그는∨연수차∨도미를∨하게∨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 뒤의 '하다', 조사와 의존 명사 '만', 목적을 나타내는 접미사 '-차',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 뒤에서 독립적으로 쓰인 '하다'는 앞말과 띄어 쓴다. 한정을 나타내는 조사 '만'은 앞말에 붙이지만, 일정한 기간이나 횟수가 지난 뒤를 뜻하는 의존 명사 '만'은 앞말과 띄어 쓴다. 목적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차'는 앞말에 붙이고, '-게 되다'의 '되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틀리고 ㄴ만 맞으므로 'ㄱ, ㄴ'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ㄱ의 '어려운 공부한다고'는 '어려운 공부 한다고'로 띄어 써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② X — ㄱ과 ㄷ이 모두 틀렸으므로 'ㄱ, ㄷ'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ㄱ은 '어려운 공부 한다고', ㄷ은 '다섯 번 만이다'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③ X — ㄴ은 맞지만 ㄷ은 틀렸으므로 'ㄴ, ㄷ'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ㄷ의 '다섯 번만이다'에서 '만'은 일정한 횟수가 지난 뒤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다섯 번 만이다'로 띄어 써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④ O — ㄴ의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로 신제품을 개발하였다'는 모든 띄어쓰기가 맞다. ㄹ의 '연수차'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미사 '-차'를 붙여 쓰고, '하게 되었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쓴 것이므로 맞다. 따라서 맞는 것은 ㄴ과 ㄹ이다.
⑤ X — ㄹ은 맞지만 ㄷ은 틀렸으므로 'ㄷ, ㄹ'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ㄷ은 '다섯 번 만이다'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오답 포인트

'공부하다'가 한 단어라는 점만 보고 ㄱ의 '공부한다고'를 붙여 쓰기 쉽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공부'가 관형어 '어려운'의 수식을 받으므로 '공부 한다고'로 띄어 쓴다. 또한 ㄷ의 '만'을 한정의 조사로 보면 붙여 쓰게 되지만, 여기서는 일정한 횟수가 지난 뒤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만'이 '오직'의 뜻이면 조사이므로 붙이고, '얼마의 기간·횟수가 지난 뒤'의 뜻이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차'가 목적을 더하면 접미사이므로 붙이며, '-게 되다'는 보조 용언 구성이므로 띄어 쓴다. 관형어가 바로 앞 명사를 꾸미는 구조에서는 뒤의 '하다'를 별개의 용언으로 보아 띄어 쓴다.

암기 포인트

한정의 '만'은 붙이고, 경과의 '만'은 띄운다. 목적의 '-차'는 붙이고, '-게 되다'는 띄운다.

NoteBase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興亡이 有數ᄒᆞ니 滿月臺도 秋草ㅣ로다.
五百年 王業이 牧笛에 부쳐시니,
夕陽에 지나ᄂᆞᆫ 客이 눈물계워 ᄒᆞ노라.
(나) 仙人橋 나린 물이 紫霞洞에 흘너 드러,
半千年 王業이 물소릐쑨이로다.
아희야, 故國興亡을 무러 무엇ᄒᆞ리오.
(다) 五百年 都邑地를 匹馬로 도라드니,
山川은 依舊ᄒᆞ되 人傑은 간 ᄃᆡ 업다.
어즈버, 太平烟月이 ᄭᅮᆷ이런가 ᄒᆞ노라.

① (가)~(다)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슬퍼하고 있다.

② (가)~(다) 각각에 나타난 '五百年', '半千年', '五百年'은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다.

③ (가)의 '牧笛'은 목동이 부는 피리를 의미하며, 흥망성쇠의 무상함에 대한 청각적 상징의 표현이다.

④ (가)의 '부쳐시니'는 '깃들여 있으니', (나)의 '무엇ᄒᆞ리오'는 '무엇 하겠는가', (다)의 '人傑'은 '뛰어난 인재'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⑤ (가)~(다)와 같은 문학 장르는 고려 말기부터 발달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4음보의 형태를 가진 평시조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세 작품의 공통 소재와 정서, 한자어·고어의 뜻, 표현상 특징, 평시조의 형식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고려 왕조의 흥망을 회고한다는 공통점과 하나의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직접 슬퍼한다는 설명은 구분해야 한다.

핵심 개념

회고가는 지난 왕조나 옛 도읍의 자취를 돌아보며 흥망의 무상함을 드러내는 시조이다. (가)~(다)는 '五百年·半千年', 옛 도읍과 왕업, 사라진 인물 등의 표현을 통해 고려 왕조의 흥망과 옛 영화의 소멸을 회고한다. 다만 이러한 공통 소재가 세 작품이 하나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똑같이 서술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세 작품은 모두 고려 왕조의 흥망과 옛 영화의 소멸을 회고하지만, 특정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동일하게 제시하여 슬퍼하는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틀린 표현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며, 올바르게는 '고려 왕조의 흥망과 멸망, 옛 도읍의 쇠락을 공통으로 회고하고 있다'이다.
② O — '五百年'은 500년, '半千年'은 천 년의 절반인 500년을 뜻하므로 세 표현은 모두 같은 기간을 나타낸다.
③ O — '牧笛'은 목동이 부는 피리이다. 오백 년 왕업의 자리에 목동의 피리 소리만 남았다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과거의 영화와 현재의 쇠락을 대비하고 흥망성쇠의 무상함을 드러낸다.
④ O — (가)의 '부쳤시니'는 왕업의 자취가 목동의 피리 소리에 붙어 있거나 깃들어 있다는 뜻이고, (나)의 '무엇흐리오'는 '무엇하리오'라는 설의적 표현이다. (다)의 '人傑'은 뛰어난 인물을 뜻한다.
⑤ O — (가)~(다)는 모두 초장·중장·종장의 3장, 각 장이 두 구로 나뉘는 6구, 전체가 대체로 4음보로 이루어진 평시조이다. 평시조는 고려 말부터 발달한 우리 고유의 정형시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공통된 역사적 배경'을 '동일한 구체적 역사 사건'으로 바꾸어 놓은 데 있다. 세 작품의 공통점은 고려 왕조의 흥망과 옛 도읍의 쇠락을 회고한다는 것이며, 작품 속에는 하나의 특정 사건이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여러 작품의 공통점을 묻는 선지는 먼저 반복되는 핵심어와 정서를 확인한 뒤, 선지가 그 공통점을 지나치게 구체화했는지 살핀다. '왕업·도읍지·흥망'은 왕조의 흥망을 회고하는 공통 소재이지만, 이것만으로 동일한 사건을 직접 다룬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한자어는 문맥 속 의미로, 갈래는 장·구·음보의 형식으로 각각 검증한다.

암기 포인트

오백 년 왕업과 옛 도읍의 쇠락은 고려의 흥망을 회고하는 소재이고, 3장 6구 4음보는 평시조의 기본 형식이다.

NoteBase